

특별기고

지역 축제 · 행사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강진호 /강진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전망된다. 다중이 운집하는 지역 축제나 행사는 한껏 고조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다양한 변수에 의한 돌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이태원 헬로윈 축제의 안전관리 부실 대응 등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각종 축제나 행사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다시 한번 과거를 깊이 되짚어 보고 미래를 위한 반성과 대안 제시를 위한 생각을 다듬어볼 필요성이 있는 데 이는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게 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경찰을 비롯

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행사의 주최자들은 사전에 위험성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인적, 물적 대응을 고민하는 등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통상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는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다양한 정부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 협력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헬로윈 축제 사고에서 보듯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있어 시급히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 국민들은 물론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매주 여러 차례의 각종 행사가 개최되고 있고 우리 강진군 내에서도 강진만 춤추는 갈대 축제 등 각종 한마음 축제나 송년의 밤 행사 같은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연말 해넘이와 신년 타종식과 해맞이 행사가 개최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교통 및 군민들의 안전사고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경찰에서는 다중이 운집하는 지역 축제나 행사장 현장에 진출 안전정자치부 및 주최 측과 관계 공무원 및 행사 대행사에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요청하고, 안전요원 배치 등 구체적 보완 사항을 알리는 등 의견을 개진하여 오고 있다. 다행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에는 지역마다 시·도·군·구 안전관리위원회를 둬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 하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수습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행사의 주체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국민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에 발 빠른 대응과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키고 조심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에 참석할 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과 이에 대한 행동요령 습득하고 스스로 지킬 때 안전한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행동 매뉴얼을 제작 행사 참석자들에게 배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전에 밀집 지역을 파악해 우회하는 등 축제와 행사 등에서 출

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 들어가지 않거나, 주변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휴대 폰을 보며 걸지 않거나, 지나치게 사람이 많은 곳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조심하기, 다른 사람이 닿을 정도로 사람이 많은 상황일 경우 바로 자리를 벗어나야 하겠다. 특히 질서위협이 있을 경우 팔짱을 끼쳐 숨 쉴 공간을 확보하고 천막이나 부스를 고정하는 줄에 묶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각종 축제·행사에 대해 단계별, 유형별로 행동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고 안내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새해에는 각종 축제·행사·공연·체육경기 등에 있어서 사전 철저한 계획과 관리로 국민 모두가 안전에 공감하도록 해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소원해 본다.

2022년은 코로나19 재유행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와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 속에 그간 억누르고 있던 지역 축제나 공연 및 각종 행사가 펜터믹 시간 이전으로 복귀된 만큼 각종 지역 축제와 각종 행사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화목보일러 안전하게 사용하기



김성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이다. 이에 보성소방서에서는 화목보일러 세대를 방문해 소방안전교육 및 먼지 제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선되어야 할 것은 사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이다. 안전수칙을 알려드리니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 첫째 화목보일러실은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일러 주변에는 장작 등 가연성 물질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화목보일러 사용 시에는 연료 투입구를 닫아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보일러 안과 연통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셋째 보일러실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각 가정에서도 초기 화재진압 및 대피에 도움이 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과열에 의해 투입한 연료 외에 주변 가연물까지 불이 옮겨 붙

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지킨다. 지금 사용중인 화목보일러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자.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한 겨울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조그마한 부주의도 용납해선 안 될 것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 성숙된 시민의식 필요



신종휴 /여수소방서 소방정대장

첫째 불법 주정차량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을 할 수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이상 불법 주정차 한 차량,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에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 경계석 또는 도로바닥에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소화전이 보이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다. 둘째 소방차 길 터주기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소방차를 보고 길 터주기를 하고 싶지만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된다. 운행 중 뒤에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면 ▷교차로 또는 그

난방기구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화목보일러는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연료로 하며, 난방비 절약 효과로 인해 농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량이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목보일러는 온도조절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고 안전수칙 미준수 등 부주의로 인해 화재에 취약하며 화목보일러의 안전관리 규정 등을 담은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계속되는 폭설·한파로 미끄러짐 사고와 동파 등 겨울철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은 화재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소방차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량 단속 및 길 터주기를 통한 성숙된 시민의식 확립이 필요하다.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긴급자동차의 통행 지장이 우려될 경우 왼쪽 가장자리로 일시정지 가능)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지속적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소방차

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편도3차선 이상도로에서는 소방차량이 2차로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3차로로 양보 소방차통행로 확보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관계된 것인 만큼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동참했으면 한다.

기사제보 E-mail : honamnews@hanmail.net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www.homae.co.kr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번지)
사장실 (062) 363-0027 편집국장 (062) 363-8800
광고국 (062) 363-0005 정·경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회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체부 (062) 362-6116
인쇄취재본부 (062) 943-0140 지역사회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L
호남매일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독자 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
지국안내
총장 223-4123
무등 224-4188
동부 234-4235
화동 225-0651
광천 374-2120
화정 374-3713
금호 376-7153
쌍촌 371-9384
상무 381-5310
서부 651-0004
송암 362-4102
농성 362-4102
진월 671-7276
봉선 675-5530
중앙 521-5640
중흥 433-1503
양산 574-3745
운암 521-4270
오치 261-9461
문흥 261-9462
일곡 573-3200
동운 525-8994
두암 266-1920
첨단 971-1920
신창 955-0451
월곡 941-9174
송정리 010-5524-3638
지사안내
목포 010-8718-1234
순천 010-9656-1383
광양 010-9656-1383
나주 010-3644-7272
나주 010-3644-1309
담양 010-3602-3550
곡성 010-2632-4504
구례 010-8897-0053
보성 010-3626-4776
화순 010-2430-5055
영광 010-9860-5489
완도 010-5066-4708
장흥 010-5665-8354
신안 010-4217-9480
강진 010-3775-2369
장성 010-3610-7824
무안 010-9271-8517
여수 010-8587-2288
함평 010-3095-5842
영암 010-4604-3742
진도 010-8525-4567
해남 010-3471-6542
광산 010-7613-4320